

kiri Weekly

2014.3.17 제275호

포커스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글로벌 이슈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시사점

유럽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전략 변화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비트코인에 대한 Krugman의 비판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Krugman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 그 이유는 화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첫째, 비트코인은 금본위제도 하에서 나타난 문제점(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그대로 갖고 있음. 둘째, 금과 같은 실물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 가치는 참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 IT 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화폐 대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Krugman의 비판을 계기로 비트코인 (Bacterin)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며, 온라인 코드에 불과함.
 - 비트코인은 수학문제를 풀면 이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되는데, 이처럼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불림.
 - 수학 문제를 풀어서 총 2,100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등 비트코인 총량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3년 8월까지 1,200만 비트코인이 채굴된 것으로 알려짐.
 -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 거래소까지 생겼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중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정부 세금, 규제 등과 관련한 불신이 비트코인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Paul Krugman은 New York Times(2013. 12. 28) 기고에서 비트코인은 'Evil'이라며 화폐의 3대 기능* 중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화폐는 거래수단(mediums of exchange), 가치저장 수단(store of value), 회계단위(unit of account) 등 3대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가치저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치는 불안정하다는 것임.

●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Krugman의 주장처럼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금, 은 등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이들을 평소에 보관하고 또 거래에 직접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의 가치에 연동된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금본위제도 또는 금태환제도라 함.

● 화폐의 가치는 금 자체의 가치 및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금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금의 양이 많아지면 경제가 부유해진다는 중상주의가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음.

■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를 금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화폐와 금의 교환(태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금본위제도가 포기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불태환 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됨.

● 금본위제도의 단점은 첫째, 화폐가치가 금 자체의 가치와 금 공급에 의해 변동함에 따라 안정되기 어려웠음.

● 둘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폐 수요는 늘어나지만 금 공급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화폐 사용을 억제하여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게 됨.

- 그렇다고 경제가 보유한 금의 총량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금본위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됨.

■ 금본위제도하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금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불태환 통화제도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권(재정 건전성)에 의해 결정됨.

●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통화(화폐) 가치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정부국채를 보유함.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부채인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B/S와 중앙은행의 B/S를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통화(화폐) 가치는 조세권에 의해 지지됨(〈그림 1〉 참조).
 - 재정 건전성이 의심될 정도로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 가치도 하락하게 됨.
 -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경우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며, 중남미에서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포퓰리즘에 의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임.

〈그림 1〉 정부 및 중앙은행 연결 B/S와 통화 가치



- 가상화폐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며,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신뢰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실물 화폐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거래수단이기는 보다는 투자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참여자들이 주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물론 비트코인으로 화폐가 대부분 대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금의 경우 화폐로서 기능이 없어지더라도 금 자체의 가치를 갖고 있으나, 비트코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실물 화폐의 경우보다 더 위험한 문제(예를 들면 IT 버블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
- 화폐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나,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자, 편리한 거래수단 등이 결합되어 있어 이의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움. [kiri](#)